

‘남쪽을 향하여’ 호소와 ‘부산을 향하여 묵념’의 메아리: 부산UN기념공원의 남쪽 골프연습장은 철거돼야 한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신 동 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서 농업생명과학대학 상록회 회원은 지금도 홀수 달에 여전히 모임을 가져 친목을 돈독히 하고 있다. 이 모임의 회원 일행은 2007년 12월 6일과 7일에 1박 2일 여정으로 KTX 08:40분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첫날은 부산역에서 부산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해운대를 향하였다. 그 곳에서 당일은 글로리콘도 중국관에서 중식을 한 다음 누리마루를 관광하고, 동심으로 돌아가 광안리 앞 바다에서 뱃놀이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고, 한국콘도서 휴식을 취하였다. 이튿날 청사포 해변, 기장 주변을 둘러보고 이어 부산남구 소재 부산UN기념공원에 이르러 참배 후 태종대, 용두산을 관광한 후 명승고적지를 남겨 두고 아쉬움에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이런 일정을 거치는 동안 가슴 깊이 인상을 남긴 것은 부산 UN기념공원에 갔을 때였다. 우리 일행을 안내한 부산관광회사 영업부 김석만 부장이 이 현충원을 안내하면서 우리 일행이 언덕배기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남쪽을 향하여 보세요” 하면서 “여기 영령들을 모신 현충원 바로 코앞에 실내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을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역에 잠든 영령들의 후손들이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주민은 한가로이 골프를 치는 광경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참전국 관련인사들이 현충원을 예방했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구해 준 국민들은 오늘날 잘 살게 되어 한가로이 공이나 친다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니 우리들은 저 골프장을 철거해야만 합니다”라고 힘주어 호소하였다. 이 말이 듣는 우리들에게는 예사롭지 않고, 특히 내 마음에는 깊이 새겨져 잊을 수 없었다.

한 관광회사 부장의 단순한 여행가이드가 아니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큰 외침이었으며 그가 나라사랑을 가슴으로 호소를 한 장면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늘 내 가슴 속에 떨친 것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만이 저 골프장을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한 말이었다. 그의 외침을 하루도 잊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박한 기도뿐이며 어찌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혼자만이라도 골프장을 철거하기 위한 묘역 성역화와 관련한 건의문을 마련하였다.

부산UN기념공원은 6·25 전쟁이 발발하여 우리나라가 벼랑 끝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역만리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된 전사자의 유택이요 영령들이 잠든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들이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는 곳이며, 여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마다 전몰자들을 위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현충원이 성역화되어야 하며, 주변 환경 정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더더구나 이 성스러운 묘역 남쪽에 민간인 경영의 골프연습장은 정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묘역에 안장된 영령들은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두고서 하늘에 사무친 비운을 품고 장렬하게 산화함으로써 이 나라를 구하고 가신 영웅들입니다. 이제 6·25 전쟁 용사의 유족들과 참전국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봉헌한다는 정신으로 그들의 희생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깊은 감사를 표하는 성역임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쪽 조망권 내의 골프장을 볼 때 불현듯 이 나라를 지켜준 국민들은 한가로이 놀이에 빠져 골프를 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어찌면 비웃음을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양식 있는 시민들이 먼저 각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마땅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설물의 철거를 강구해야 될 처사입니다.

이런 요지의 건의서를 청와대 안보담당관, 부산직할시장, 부산남구청장, 부산직할시의회의장, 부산일보 편집국장께 각각 2009년 9월 11일 자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고,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답변을 단 한 기관인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받았다. 부산UN기념공원의 성역화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이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믿을 뿐이다. 중국 고사에 우공이산(愚公移山) (중국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남이 볼 때 어리석은 일화)이라는 말처럼 생각되지만... 그 관광가이드 말대로 언젠가 성역화가 되고 정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더욱 우리가 골프장을 철거하고 성역화하여야 하는 것은 금년 2014년에 처음으로 한 행사는 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을 향해 묵념(TURN TOWARD BUSAN)을 올린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충원에 해당되는 이 시각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1월 11일로 2007년 6·25 전쟁 참전용사인 캐나다 인 빈센트 커트니씨의 제안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에서 시작, 올해 처음으로 당시 참전한 21개국 모두가 동참하여 우리나라 시각에 맞추어 매년 행사를 열게 되었다.

6·25 전쟁은 참으로 비길 데 없는 참혹한 전쟁이었다. 유엔군만으로도 참전했다가 3만 3,686명이 전사하고 부산UN기념공원에 현재 11개국 참전용사 2,300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이들은 총알이 빗발치고 생사가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대가로 오늘날 우리가 소중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의 은공이다.

이 현충원을 참배했을 때 여기에 잠든 영웅들은 하나뿐인 고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지날 수 없었으며, 더욱 가슴을 슬프게 하는 것은 호주인 17

세 다운트(J.P. Daunt)의 묘역이었다. 그의 약사(略史)를 듣고 가슴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고 다운트는 한참 부모 품 안에서 응석을 부리며 꿈과 낭만으로 살아갈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전사하였다. 앞으로 현충원 참배객과 유족이 참배할 때나 부산을 향하여 묵념할 때나 골프연습장을 생각하면 성역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염원한다.

김만석 가이드의 말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메아리쳐 골프장이 철거되면 부산 UN기념공원은 명실상부한 현충원이 되며 화룡점정(畫龍點睛)이 될 것이다.